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김희경

전화 02-3219-4420 / 팩스 02-3219-2397

보도자료
2022. 12. 6.(화)

제 목 에디슨모터스(주) 쌍용차 먹튀 관련 자금조달세력 6명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조 제1항)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2. 6. 에디슨모터스(주) 경영진과 공모하여, 코스닥 상장사 (주)에디슨EV를 무자본 인수 후 쌍용자동차(주) 인수 및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하여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약 12만 5,000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1,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 甲자산운용(주) 고문 AOO을 구속 기소하는 등 에디슨모터스(주) 경영진 뒤에 숨어 정상적인 재무적 투자자로 행세하면서 약 10개월 만에 각자 20억 원 ~ 6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득한 자금조달책 6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구속 5, 불구속 1)하였음

1 피고인

- AOO [49세, 전 甲자산운용(주) 고문](구속)
- BOO [54세, (주)乙 실질사주](구속)
- COO [53세, 甲자산운용(주) 대표](구속)
- DOO [52세, 전 甲자산운용(주) 고문](구속)
- EOO [50세, 전 변호사](구속)
- FOO [53세, 전 丙자산운용(주) 이사](불구속)

2

공소사실 요지

- 에디슨모터스(주) 경영진과 공모하여, '21. 5. ~ '22. 3. 허위 공시, 가장 납입성 자금순환 등 부정한 수단으로 쌍용차 인수 등 전기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함으로써 (주)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약 1,621억 원의 부당이득 취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3

수사 경과

- '22. 7. 26.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금감원에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이첩
- '22. 8. ~ 10. 에디슨모터스(주) 사무실 등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 '22. 10. 24. 에디슨모터스(주) 회장 등 경영진 4명 기소(구속 2, 불구속2)
- '22. 11. 18. 甲자산운용(주) 고문 A○○ 등 자금조달책 5명 구속
※ 자금조달책 6명 구속영장 청구하여 5명 발부, 1명 기각
- '22. 12. 6. A○○ 등 자금조달책 6명 기소(구속 5, 불구속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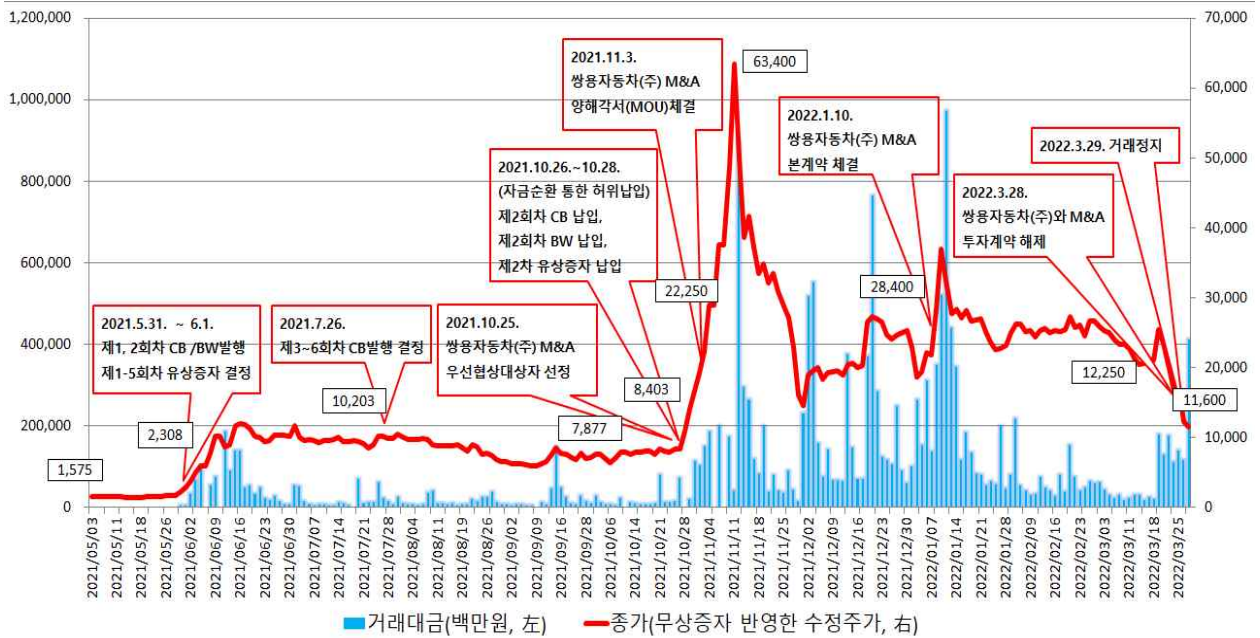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 사건은 자금조달 세력과 회사 경영진들이 각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결탁하여, 국가 기간산업인 '쌍용차 인수'를 주가 조작의 재료로 삼아 약 12만 5,000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쌍용차 인수 절차를 수개월 지연시킴으로써 쌍용차 근로자 및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임
- 특히, 피고인들은 '21. 9. ~ 10. 에디슨모터스(주)가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입찰 신청을 하자 입찰금액에 대한 자금조달증빙을 제출하면서, 자산운용사 명의의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하거나 투자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 또는 법인들의 잔고증명서 등을 편취하여 제출함으로써 결국 에디슨모터스(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하는 등 매각주간사와 법원을 기망하고 쌍용차 회생절차를 형해화하였음

- 피고인들은 저가에 구주 및 CB, BW를 인수하고 ① '21. 5. ~ 10. 대규모 허위 자금조달 공시(1,950억 원 규모), ② '21. 10. 25. 허위 인수자금증빙 자료를 이용한 쌍용차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③ 이후 '22. 1. 10. 인수자금 조달 능력도 없이 쌍용차 M&A 본계약 체결 공시 등 허위의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켰으며, '21. 10. ~ 11. 주가 급등시 보유 주식을 집중적으로 처분하여 각자 20 ~ 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기회를 부여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 공유함

※ (주)에디슨EV 주가는 '21. 5.경 1,700원대였으나 본건 범행으로 '21. 11. 11. 63,400원(증가)까지 급등(704.9% 상승)하였음

【 (주)에디슨EV의 주요 공시 및 주가변동 현황 】



구 간		'21.5.3. ~5.28.	'21.5.31. ~6.16.	'21.6.17. ~10.22.	'21.10.25. ~11.11.	'21.11.12. ~22.3.29.
주가 (원) [수정증가]	최고	1,775	11,991	11,828	63,400	49,950
	최저	1,492	2,308	6,001	7,877	11,600
	말일	1,775	11,991	8,152	63,400	11,600
	변동폭(%)*	19.0	419.5	97.1	704.9	330.6
거래량 (주)	최고	141,095	4,154,711	4,392,744	7,000,843	39,612,419
	최저	6,069	355,429	78,954	234,606	792,202
	평균	30,710	2,520,173	554,214	3,442,271	6,329,316

* 변동폭은 최저가 대비 최고가 변동 폭 : (최고가 - 최저가) ÷ 최저가 × 100

- 피고인들은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고 정상적인 재무적 투자자로 행세 하면서 다수 투자조합을 내세워 소위 쪼개기 투자수법으로 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등 은밀하게 범행함에 따라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밀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 도구로 쓸 상장사 인수, 투자구조 설계, 자금조달 허위 공시 등 범행을 피고인들이 주도하였음을 명확히 밝혀냄
- 사건 초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은 이 사건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신속하게 기획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Fast Track**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결과 신속·정확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했고, 이후 주요 혐의자들 구속기소까지 전 과정을 약 6개월 만에 완료함으로써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음
 - ※ 금융감독원은 패스트트랙 이첩 후에도 자료 분석, 압수·수색 등 수사 적극 지원
- 향후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신속한 엄정 대응으로 자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음 